

‘중국현대미술 흐름’ 한눈에

18일까지 나인갤러리



반수지엔 작 '기타오케'

현대미술의 중심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중국현대미술의 흐름'전이 오는 18일까지 나인갤러리에서 열린다.

반수지엔은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인물을 통해 사회적 계급을 꼬집은 작품 '기타오케'를 전시한다.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마이크를 등장시켜 평등, 존엄성 등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한편 베이징 송장예술촌은 '파산스 798'과 더불어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며, 2천여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

장 폴로 건국대 교수 위촉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세계적인 샌드 애니메이션(Sand Animation) 작가인 장 폴로(52·프랑스·건국대 교수·사진)씨를 제7회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공식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장 폴로 홍보대사는 지난 1991년 'Claymation Easter'로 에미상을,

1993년 'Soundtrack for MonaLisa Descending a Staircase'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이다. 또 가수 모세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하고, 가수 김동률의 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유럽 등지에서 지명도가 높아, 광주비엔날레를 유럽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장 폴로씨를 개막식에 초청해 그의 작품을 선보이고, 행사 기간에도 강연이나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샌드 애니메이션은 관 위에 모래를 뿌린 뒤 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만화 기법으로 최근 국내 CF 등에 소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연극 정보 '연극촌'에 가면 다 있다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연극 티켓은 티켓링크, 티켓파크 등에서 구매가 가능해 해당 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공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 연극계에서는 개별 극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단편적인 정보를 얻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주말에 볼 만한 연극 공연 없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 '연극촌'(cafe.daum.net/drama2003)을 찾아가 보자.

연극촌에는 광주 지역의 다양한 연극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카페에서는 현재 공연중인 작품을 소개하고 극단들과 20~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현재는 지난 13일 시작한 '광주소극장축제' 관련 정보가 게재돼 있다.

또 청춘, 알·아리, 진달래 피네 등 지역 극단과 조선대 극대술연구회 등 대학 연극반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놓아 관심이 있는 극단 소식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 각 극단이 개별 카페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단편적인 정보만 알 수 있어 조금 아쉽고, 광주연극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선 변변한 정보 하나 얻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연극촌'은 조금 서툴기는 하지만 지역 연극의 든든한 보루임에 틀림 없다.

카페 주인장은 '게슈탈트'라는 닉네임을 쓰는 연극 배우 박영진씨다. 부산 출신으로 지난 1997년 광주로 둥지를 옮긴 박 씨는 푸른연극마을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다. 얼마전에는 광주 대표로 전국연극제에 참여한 푸른연극마을의 '짬뽕'에서 주인공 신자로역을 맡았고, 최근에는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등 극단의 작

품에도 객원 배우로 참여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 중이다. 박 씨가 연극촌을 처음 만든 건 지난 2003년이었다. 처음에는 소속 극단인 푸른연극마을의 홈페이지 사진 등을 올리다 지역 연극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극단의 소식도 알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 소식과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40여명의 배우들 사진과 공연 사진이다. 만만찮은 사진 실력을 자랑하는 박 씨가 최종 리허설 각 작품의 공연장을 방문, 배우들의 살아 있는 표정을 생생히 포착한 사진들이다. '연극촌'은 관객, 연극인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극단들은 게시판을 통해 자신들의 공연 소식을 알릴 수 있고 관객들은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자료를 열람하고, 할인 티켓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연극촌 회원들에게 모든 공연이 일률적으로 할인되는 건 아니다. 극단들과 협의를 거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연극촌'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는 곳은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와 청춘이다.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마술가게'와 '의자는 없다'를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했고, 16일부터 '버스를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리는 극단 청춘은 현재 3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박 씨는 "내세를 게 없다"며 겸손해 하지만 지역 연극인들은 협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개인이 꾸려가고 있다며 '연극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일반 관객들이 연극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관객들과 극단이 이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았을 뿐이고, 솔직히 요즘엔 게를 피우느라 사이트에 정성을 들이지도 못했다"며 " '연극촌'이 관객과 극단들이 북적거리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의 연극 정보를 한 자리에서 모아 놓은 인터넷 사이트 '연극촌'을 운영중인 연극배우 박영진씨가 15일 '광주 소극장 축제'가 열리고 있는 CD 아트홀에서 포즈를 취했다.

연극배우 박영진 운영 인터넷 카페 각종 공연 정보·티켓 할인 등 제공 배우 40여 명 생생한 공연 사진도

손해 하지만 지역 연극인들은 협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개인이 꾸려가고 있다

박 씨는 "관객들과 극단이 이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았을 뿐이고, 솔직히 요즘엔 게를 피우느라 사이트에 정성을 들이지도 못했다"며 " '연극촌'이 관객과 극단들이 북적거리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환경 뮤지컬 '쓰레기 마왕 대소동' 공연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어린이 환경 뮤지컬 '쓰레기 마왕 대소동'(사진)이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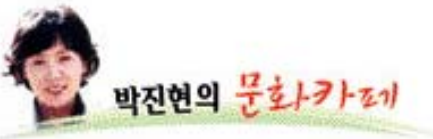
광주문예회관이 기획한 화요예술무대 초청 작품인 '쓰레기 마왕 대소동'은 환경 문제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아이들의 시선에 맞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 자연스럽게 교육 효과를 얻도록 했

다. 평화로운 지구마을에 쓰레기 마왕이 침입, 마을 이곳 저곳을 쓰레기 동산으로 만든다. 동물 마을에 살고 있는 토끼와 사자, 도깨비 꼬비는 힘을 모아 마왕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숲을 지켜낸다.

지난 1997년 결성 후 동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온 한국반달문화원이 제작했으며 김정선·안승희·김영애·변재현·김주연씨 등



이 공연한다.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짧은 꿀' 삼복서점과 북룸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핼리팩스는 인구 36만 명의 항만도시다. 농업과 어업이 발달한 이 도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항구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핼리팩스가 유명한 이유는 정작 다른 데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169년 전통의 고서점 '북룸(Book Room)' 때문이다.

지난 1839년 문을 연 북룸은 핼리팩스 시민들의 정신을 살찌우는 '지혜의 보물창고'로 사랑을 받았다. 지난 70~80년대에는 지역민은 물론 멀리 밴쿠버, 몬트리올 등지에서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북룸이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로컬 프렌들리(local friendly)' 덕분이었다. 정기적으로 지역작가들을 초청해 독자들의 자리를 주선했으며, 대도시에 비해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 항구도시 핼리팩스는 '북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캐나다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이름을 떨쳤다.

그런데 지난달 핼리팩스가 또 한번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다른 아닌 북룸의 폐업 때문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에도 견뎌냈지만 대형 서점의 공세와 소비자들의 달라진 구매 패턴에 두손을 들고 말았다.

특히 독자들의 온라인 구매는 결정타였다. 서점에 따르면 아파트 1층에 북룸이 영업중이던 2층에 사는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다. 아파트에서 걸어 내려와 2층이면 서가에서 원하는 책을 집어들 수 있는 데도 5일이 지나야 책이 배달되는 온라인 주문을 선호했다. 서가에서 책을 직접 골라보는 여유 보다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리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폐업 소식이 알려지자 서점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수많은 글들이 이어졌다. 18년째 단골이라는 한 고객은 "이 조그맣고 친근한 동네 서점에서 누려온 '특별한 기쁨'을 잃게 돼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이곳을 통해 유명작가가 된 앨런 린치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가족 중 누군가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아쉬워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광주의 삼복서점 본점이 이달 말 폐업하기로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1996년 총장로의 터줏대감인 '나라서적'이 문을 닫은지 12년 만에 또 하나의 토종서점을 잃게 된 것이다. 대형서점의 공세와 온라인 구매 증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 핼리팩스의 '북룸'을 연상케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서점 폐업이 빅 뉴스는 아닐지 모르지만 삼복서점 폐업은 광주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오랜 세월 시민들과 동고동락해온 '가족'이자, 문화도시 광주를 지탱해 온 또 하나의 랜드마크였기 때문이다. '실리'에 집착한 나머지 서점에 들러서 책이 책 뒤쪽이며 느끼는 삶의 여유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movie listings. It features a banner with 'Happy Time 영화안내' and several cinema listings including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Each listing shows movie titl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